

건강인의 눈길모을 小兒再活院 이야기

1

재활원이란 무엇인가

재활원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생활주변에서 생소하고 낯선 것은 재활원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재활원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 역사의 짧음에도 있겠지만 사회인들의 재활원에 대한 무관심이 원인이기도 하다.

재활에 대한 정의는 구구하지만 1941년 미국 재활심의위원회는 “재활이란 가능한한 최대한도까지 장애자의 신체적, 심리적, 직업적 및 경제적 유용성을 회복시키는 일이다”고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와같이 재활이란 여러 측면의 재활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장애자를 일컬음이 통례라고 본다. 그러므로 재활의 최대성과를 위하여는 재활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적 요원—의사, 간호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학자, 보조기계제작기사동—들의 완벽한 인적구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소아 재활원은 위와같은 인적구성 속에서 우리나라 재활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李 聖 德

반가운 손님이 다녀갔다. 밝은 웃음으로 환송하고 있는 재활원어린이들.

현 우리나라 신체장애 아동중 가장 많은 정신박약아를 제외하고는 지체장애 아동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상당한 數를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 아동들은 현재에도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지 못한채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불과 10여년 전에는 재활치료가 우리나라에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실정을 안타까이 여겨오던 미국 선교사인 에드워드·아담스 여사가 지체장애 아동들에게 재활치료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할 것을 결심하고 헌신한 결과 기독교 세계봉사회의 지원을 얻어 1959년 10월 1일 소아재활원이 개원되었다.

그후 부속국민학교가 특수시설로서 발족하게 되었고 1964년 2월 28일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었으며 5월 1일에 소아재활원은 현세의료원에 이관 운영하게 되었다.

일단 이곳에 입원하게 된 어린이들은 세브란스 병원 각과의 전문의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된다.

2

부속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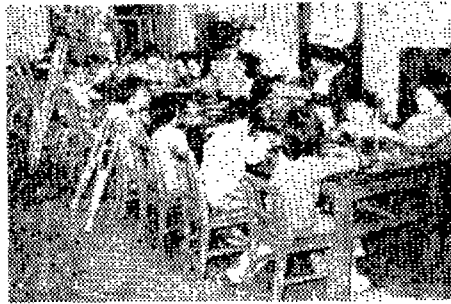
본 재활원에서는 시설이 완비된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이 있어 전문의사의 처방에 따라 신체적기능의 회복이나 개선은 물론이러니와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치료와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설로서 장애자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1) 물리치료실

2명의 물료사와 조수 한 사람이 입원환자 및 外來患者를 보고 있다. 이곳에 준비되어 있는 기구는 아래와 같다.

- ① Pulley
- ② Parallel bar
- ③ Standing table (box)
- ④ Stair case.
- ⑤ Suspension warking car.
- ⑥ Whirlpool bath.



<어머니를 대신한 간호원의 따뜻한 손길이 식사시간에도 어루만져준다>

- ⑦ Hot packs (Hydrocollator pack)

이와같은 기구들은 지체장애를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로서 입원한 환자들은 소아마비 환자와 뇌성마비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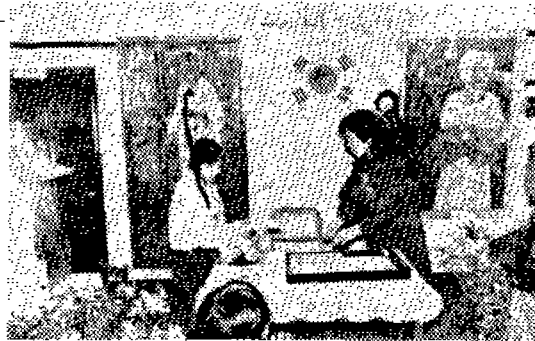
자를 분리하여 치료시킨다. 소아마비 환자에게 행하고 있는 therapeutic exercise.(치료적 운동) 으로서는

- ① Active ex.
- ② Passive ex.
- ③ Resistive ex.
- ④ Assistive ex.
- ⑤ Stretching ex.

등이 있으며 C.P.환자(Cerebral Palsy)들에게는 Routine exercise를 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입원해 있는 지체장애 아동들

의 대다수가 물리치료 받기를 딱 싫어한다. 그것은 그들의 마비된 곳을 운동시켜 주므로 당연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가장 아픈 곳을 만지며 치료를 하는 결과이므로 처음 이 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마구 울어대거나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생을 보기도 싫어 한다. 그러나 이 치료의 효과를 알게 되고 또 자신들의 울음을 녹음기에 담아 들려주게 되자 다시는 울지도 않을뿐 아니라 물리치료실을 회피해 오던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선생님! 내 차례예요. 왜 운동 더 안해줘요. 나 오늘 한번 밖에 하지 않았어요”(一日二회 오전 오후로 한다)하면서 선생님이 혹 자기의 치료는 등한히 하지 않나하여 지나친 신경을 쓰기도 한다. 그렇지만 치료후 Brace를 신고 걷는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지루한 모양이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의 눈을 피하여 살짝 도망하는 어린이도 있다.



<경주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식광경>
벽에는 졸업생들이 손수만든 작품들이 걸려 있다.

2) O.T.치료실(Occupational Therapay) :작업치료실)

역시 두명이 일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가능한 대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설사 손발이 부자연스럽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구두를 신고 끈을 메도록 하며 단추도 스스로 잠그게 한다. 그것은 이와같이 끊임없는 운동을 시킴으로써 운동에 대한 의욕감과 함께 하면 된다는 확신감을 넣어 주며 운동의 숙달에 의한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물리치료실과 같이 환자를 구분하여 치료한다. 소아마비 환자들은 부분적인 마비환자이므로 상지발달, 목공, 힘을주는 운동, 못박기, 나무짜르기, Brace를 신고, 균형을 잡기 위한 운동, 원에 꿰집어던지기 등을 시키고 있으며 C.P. 환자들은 대부분이 하체마비거나 전신마비이므로 우선 아이에 관한 평가부터 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다. 뇌성마비 환자의 치료는 다음 3가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① 신체적인 방법

㉔ 근육강화

㉕ 관절의 가동범위 증진 및 유지

㉖ 지구력 증진

㉗ Coordi-nation 증진

㉘ 정신적인 방법

㉙ Perception증진 또는 자극

㉚ 오랜 병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㉛ Body image확립.

③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동작)

㉜ Toileting

㉝ Dressing

㉞ Hygiene

㉟ Transfer.

이상과 같이 아이들을 치료하며 Perception, training에 역점을 두기도 한다. 그러나 작업치료실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체장애 어린이 자신들이 모든 운동에 흥미를 갖게끔 언제나 주의를 쏟고 있으며 흥미를 갖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동기를

부여하여 준다. 이 C.P.환자들 가운데는 저능아도 더러 있고 뇌성마비환자들의 정신연령은 일반적으로 정상아에 떨어진다. 어떤면에서는 14歳の 어린이가 7歲 밖에 안되는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C.P.환자들의 대부분이 기억력이 짧거나 거의 기억력이 없다.

이와같이 물리치료실이나 작업치료실에서는 비정상적인 성장이나 정지된 발육을 최대한 올라르고 자유롭게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육체적인 활동을 반복시키고 있다. 운동에 대한 반복성의 주입으로서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려는 것이다. 아이들은 보조기부에 의존해서나마 자신의 몸을 스스로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체에 커다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의족에 몸을 의탁한채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보행 연습에 전력하고 있는 그들의 천진한 모습에서는 ㅅ에 대한 일종의 엄숙함마저 풍겨어 진다.

3) 언어 치료실(이비인후과소속)

1969년 1월 28일에 연세대 의대 부속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에 부설되었다. 이곳에서는 말을 알아 들지 못하거나 음성이 고르지 못하고 발음이 나쁜뿐 아니라 언어상실증에 걸려 발달이 늦거나 말더듬이 등 여러가지 형태의 언어장애자들에게 말을 잘 할 수 있게 가르치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주위에서 도외시 당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권리까지 잃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광명과 재생의 희망을 안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쉽게 말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시켜 정상적인 언어자가 되게끔 정성을 쏟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종래의 방법인 손짓이나 표정 등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점사를 통한 세밀한 진찰과 소리의 감각, 발성기관

의 움직임을 자신이 깨닫게끔 지도 치료하고 있으며 잘못된 말은 청각훈련기재 (Auditory training Equipment)를 통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 뇌성마비 환자중 언어장애자는 매주 2회씩 치료를 받거나 1회씩 받는다.

4) 사회사업과

신체장애 아동들의 치료를 위하여 사회사업과도 마련되어 있다.

㉔ 정서적 보조 : Pt 가정에 있어서의 적응 등의 문제점을 상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㉕ 재정적 보조 : Pt의 병과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Pt와 Pt의 가정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한다(일부 혹은 전부보조)

㉖ 상담 : 재활원 전반에 걸친 입원원 치료비 등에 대한 입원 전과 후에 문제되는 면을 상담하며

㉗ Follow up : 퇴원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으로 퇴원후의 Pt에 대한 상담도 한다.

5) 어머니회

장애자들을 위한 위와같은 여러가지 시설 외에 입회원 환자들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어머니회 조직을 들 수 있다. 이 어머니회는 매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여기서는 Pt의 현상태에 대한 모든면(심리적, 신체적면)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병원과의 유대관계를 깊이 가져 병원과 가정이 공동으로 어린이의 치료에 관심을 기울이고 발전하게끔 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발족하게 된 것이다. <장애아들의 부모들은 대개가 자녀의 질환에 대한 일종의 개념상태에서 이곳으로 입원시킨 실정이므로 그들은 자녀의 병에 대해서 의학적인 상식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질환을 보다 능률적으로 치료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위

과지

없는 종이조각 하나라도 절대로 남에게 줄줄 모르는 이기적인 소유욕을 한결같이 가지고 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릴 줄 아는, 받는다든 그 자체에는 명복적인 감사를 할 줄 알면서 친구들에게 자기의 물건을 나누어줌으로써 얻는 어떤 기쁨이나 우애에 찬 만족감 같은 것은 전혀 모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즐줄도 모르고 친구로부터 받을 줄도 모른다. 차라리 버릴망정 다른 아이는 못 주게 한다. 이곳에서 가장 나이 어린 세살짜리 꼬마는 그림책을 보다가 땅에 떨어뜨렸다. 그것을 옆에 있던 아이가 쫓아서 보려고 하자 울면서 밖에 갔다 버리라고 한 일도 있다. 그들은 이렇게 강렬한 소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유욕은 그들이 느낄 줄 알게 되면서부터 몸이 스며들어 버린, 가정에서 부터 받아들인 그들의 특권(?)이 아닌가 한다. 축복받아야 할 어린 생명에 왜 이런 신체적인 병이 주어졌을까 하는 부모들의 애뜻하고 가련한 사람과 가족들의 보이지 않는 동정애착 집중적인 사랑을 그들은 육감적으로 느끼며 성장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특질인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아만 왔지 주는 것을 배우지 못한 아동들이므로 이곳에서도 받는다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당당히 요구하기도 한다.

소유욕 못잖게 강렬한 것은 애정의 독점력이다. 이것은 소유감보다 그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것이다. 지나가는 선생님만 보아도 손을 만지고 자기와 놀아주기를 간청한다. 옷이라도 잡아보려고 애쓰며 자기 외의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을 무척이나 시샘내는 그들이다. 자기와 놀다가 다른 아이를 안아주면 밖에 갔다 버리라고 야단법석이다. 이렇게 이곳 아이들은 나혼자, 내것 외에는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단순하고 외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 그들은 소유감과 독점력이 철저할만큼 공동소유에 대한 인식도 갖게 되었다.

4 공동 생활

어떠한 단체에서나 마찬가지로 현상이지만 처음 이곳에 온 어린이들은 낯선 무리들과 기이한 모양의 보조기부에 접을 집어 먹기도 하고 서먹서 먹하여 집에 가겠다고 떼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장기치료자들이므로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곳의 분위기와 공동생활에 적응하게 되어 진다. 이곳 어린이들의 연령은 3세에서부터 17세까지 있으며 처음에는 서먹서먹해하던 그들도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며 공동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지게 되면 그들은 오히려 집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모두가 자기와 비슷한 모양을 한 사람들뿐이므로 어린이들은 어떤 위안과 동료의식 속에서 자신의 신체장애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고립성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재활원을 찾는 연령이 어릴수록 환자를 위해서나 부모에게도 유리하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부터는 신체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고독성의 비애보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배우고 확신과 용기를 배우게 된다. <중략>

그러므로 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가 국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부모들이 부담감 없이 자녀들을 맡겨놓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게끔 대두목적의 재활원의 설립이 필요하여 진다. 이것은 아동복지 사업으로서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며 어머니회에서 대두되었듯이 중, 고, 대학교마저 이 속에 설립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사업이 아닐까 한다.